

Wildflower Letter

들꽃편지 692

2026.9.7.백로

https://cyw.pe.kr

□ 사랑하는 벗들에게 보내는 편지

편지 한 통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기원전 5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죽찰(竹札)이 발견되었는데, 대나무 위에 글씨를 쓰고 엮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 후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에 쓴 편지가 등장했는데, 신약성경의 뒷부분이 그렇게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후 종이가 발명된 후로는 종이에 편지를 써서 보냈고, 전화와 핸드폰이 나온 뒤로는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는가 싶었는데 카톡같은 SNS가 생긴 뒤로는 '문자'가 편지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편지를 쓰는 사람은 없지요.

〈들꽃편지〉는 핸드폰도 전화도 그리 많지 않았던 199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소용'이 다 한 시대가 되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서 여전히 '편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편지'라는 단어도 사라지겠지요?

편지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달부터 우편요금이 올랐습니다. 〈들꽃편지〉한 통을 보내는데 인쇄비와 발송비를 포함하면 대략 1200원 정도 들어가네요. 1년이면 1만 5천원 정도이니 그냥 밥 한끼 값이네요. 제가 사랑하는 〈들꽃편지〉가족들에게 1년에 밥 한끼 대접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급한 소식은 까똑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시고, 〈들꽃편지〉는 급할 것 없으니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세요. 온갖 청구서나 광고지가 가득한 우편함에 손으로 쓴 편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편지'라는 이름이 붙은 우편물 하나쯤 가끔 꽂히는 것을 매월 빼 읽는 것도 재미있지 않나요? 저는 〈들꽃편지〉를 컴퓨터로 편집하지만, 마음만은 연필에 침을 묻혀가며 꼭꼭 눌러서 한편 한편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편지를 쓰는 최용우 올립니다.

□ 느낌



오래된 기계를 고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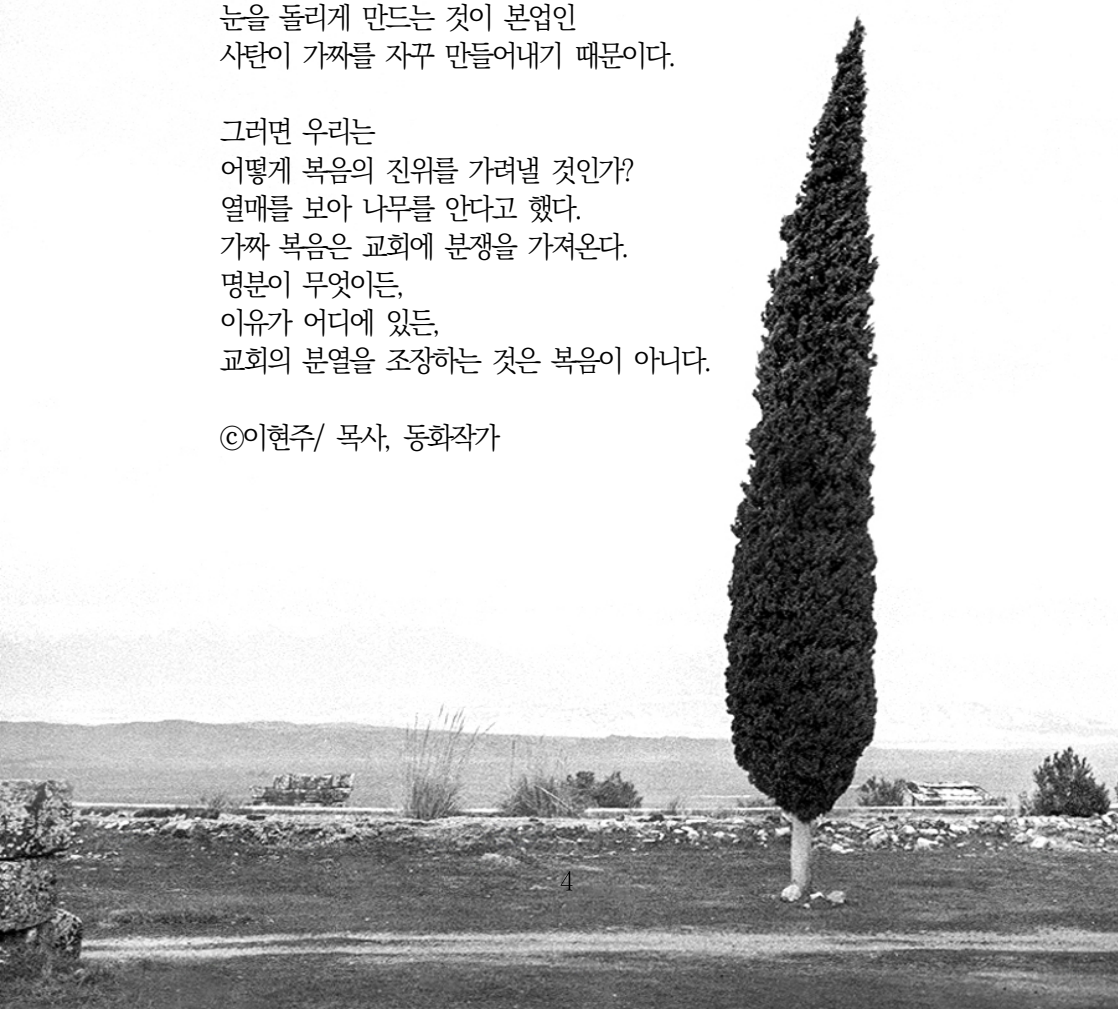
전각 이준호
https://blog.naver.com/yejjjang 도장공작실

진짜복음 가짜복음

복음은 들으면 좋지만
안 들어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니다.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 것이 복음이다.
믿음이란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이다.
그래서 그만큼 좋고 소중한 것이기에 가짜가 많다.
사람을 속여 본질에서 비본질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본업인
사탄이 가짜를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진위를 가려낼 것인가?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했다.
가짜 복음은 교회에 분쟁을 가져온다.
명분이 무엇이든,
이유가 어디에 있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83 똥묻은 휴지라도

아파트 경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분리수거입니다.
분리수거장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분리수거 하라고 비닐, 캔, 플라스틱, 투명 페트병 등 구분되어 있지만 분리를 안 하고 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변을 보고 난 후 휴지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여야 하는데 종이라고 생각하는지 폐지 모으는 곳에 버립니다.

"어휴! 젠장, 못 해 먹겠네."
온갖 쌍스런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하루 일을 마감하고 밤 11시에 경비 휴게실에서 잠자리에 들면서 묵상을 합니다.

"주님은 그럴 때마다 똥 묻은 휴지라도
한 장 줍고 감사하고 두 장 줍고 감사하였을 거야."

"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제산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셨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싼님 아찌 안녕 하셔유?"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거, 괜찮은 것 같네요.

□ 최용우詩

새(鳥)집

밤새
내 머리에
새들이
집을 지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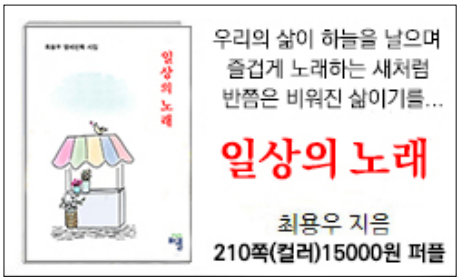
내 머리에
집을 지은
그 새 이름은
밤새 그새

최용우 제13시집〈일상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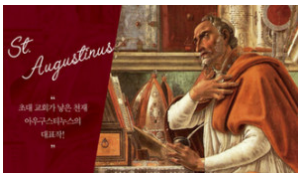
시작노트/ 요즘엔 밤새 내 머리에 흰눈이 내린다.

최용우 1-18시집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와 예수의 구원



391. 견유학파의 외설스러움

저 개같은 견유학파(이름에 개견(犬)자를 붙여서 견유학파라 했다)는 인간의 올바른 수치심에 맞서는 사상을 퍼뜨렸다. 그들의 견해는 개처럼 비열하고 파렴치한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자신의 아내와 하는 일은 정당하므로 길거리에서 공개적으로 해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어느 거리나 광장에서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디오게네스가 허세를 부리며 이 일을 실제로 했다. 그는 이런 파렴치한 짓으로 사람들 기억에 선정적인 인상을 심어 주면서 자신의 학파가 더 많이 알려지리라고 여긴 것이다.

나는 그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쾌락을 얻었으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저 철학자는 함께 눕는 일이 부끄럽지 않다고 했지만, 그런 곳에서 욕정은 부끄러워 차마 머리를 들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타고난 인간의 수치심은 이런 그릇된 사상을 이겨냈다. 그는 그 다음에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더 이상 개처럼 길거리에서 하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본능이, 개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그릇된 주장을 이겨낸 셈이다.

392. 자손 번영 축복은 죄를 저질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낙원의 저 남녀는 욕정이 부끄러워서 치부를 가렸는데,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창1:28) 하신 축복을 이 욕정으로 낙원에서 실현했으리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이 욕정이 생긴 것은 죄를 범한 뒤였다. 신체 각 부분마다 그 지배력을 잃고 수치를 알자 욕정을 느끼며 알몸임을 깨닫고 부끄러워 가린 것이다. 그러나 둘이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라는 축복은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다. 자녀 생산은 혼인 최대의 영광이며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다.

393. 하나님이 정한 혼인법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는 것은

혼인이 선물이라는 사실과, 사람이 죄를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녀를 만드셔서 혼인을 제정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남녀 성별의 차이는 그 몸에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축복도 남녀 창조와 연결된 것이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그 뒤에 곧이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다' 라는 말씀이 덧붙여졌기 때문이다.(창1:27~28).

남녀라는 말을 한 사람에게 적용해서 지배하는 요소와 지배받는 요소라고 이해할 수는 없다. 남녀가 그 신체에 성별이 있도록 만들어졌고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 땅을 정복하는 것은 혼인의 영광이며, 결코 죄에 대한 벌이 아닌 것은 틀림없다. 너무나 분명한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394. 낙원에서 출산이 있었는가

처음에 인간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부부 사이의 결합도 없었을 테고 아이를 낳지도 않았으리라 말하지만, 그렇다면 인간 숫자를 늘리기 위해 인간이 죄를 지을 필요가 있었다는 뜻이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사람들 생각처럼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이를 낳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죄를 짓지 않은 그 두 사람은 언제까지나 둘만 있었을 것이고, 단둘이었던 사람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죄가 필요했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은 믿을 필요가 없다. 죄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낙원의 행복에 걸맞은 결혼을 했을 터이고, 사랑스러운 자녀도 낳았을 것이며, 욕정 때문에 부끄럽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그 사례를 들어 증명할 길은 없다.

395. 육체를 지배하는 의지

처음에 인간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생식기관은 욕정이 아닌 의지를 따르며,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남자는 자손의 씨를 뿌리고 여자는 받아들였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손발과 손가락처럼 굳은 뼈가 있는 부분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이나 얼굴처럼 부드러운 근육으로 이루어진 부분들까지도, 의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며 쭉 펴고 비틀어 접는가 하면 힘주어 벗벗하게 만들기도 한다. 내장기관 가운데 가장 연한 폐는 가슴 안에서 보호받지만, 의지에 따라 숨을 내쉬거나 목소리를 조절한다. 즉 대장장이나 오르관 연주자가 풀무의 도움을 받듯이 폐 또한 의지로써 호흡하거나 말하고 소리치거나 노래 부른다. 지금 욕정으로만 움직이는 인간의 육신 부분을 의지로만 움직이도록 창조하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다.

396. 이 세상에 없는 참된 행복

곰곰이 헤아려 보면, 행복한 사람만이 스스로 바라는 대로 살며 또 의로운 사람



만이 행복하다. 그러나 의인도 죽음과 속임, 그리고 고통에 전혀 맞닥뜨리지 않고 앞으로도 변함없으리라는 경지에 이르지 않는 이상 바라는 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우리 자연 본성은 이를 원하며, 이 바람을 오롯이 얻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살아가는 일 자체가 자기 힘대로 되지 않는데, 우리 가운데 그 누가 바라는 대로 살 수 있겠는가? 사람은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만 언젠가 죽는다. 바라는 만큼 오래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불행을 참고 견디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 자신의 행복한 생활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한 생활을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 다른 모든 것보다 이 삶을 한결 더 열렬히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달리 사랑하는 모든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한 삶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며, 자신이 충분히 사랑하는 행복한 삶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므로 삶이 영원해야만 진정으로 행복하리라.

397. 낙원에서의 생활

인간은 낙원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원하는 한,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살았

다. 인간은 하나님을 누리며 살았고, 하나님이 선하시므로 인간 또한 선했다. 하나님 은총으로 어떤 부족함도 없이 살았으며 늘 그렇게 살 능력도 있었다. 언제나 굶주리지 않도록 먹을 것이 넉넉했고, 목마르지 않도록 마실 것이 있었으며, 누구도 늙지 않도록 생명의 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육체의 퇴화나 불쾌감을 일으킬 원인이 없었다. 몸 안에서 병이 생기거나 밖으로부터 타격받을 위험조차 없었다. 육체는 오롯이 건강했고 영혼은 매우 평온했다.

낙원에는 더위도 추위도 없었듯이, 낙원에 사는 이들에게도 욕망과 두려움 때문에 기쁜 의지가 방해받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슬픔이나 어리석은 기쁨이 도무지 없었고,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깨끗한 마음과 맑은 양심과 순수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딤전1:5) 하나님을 사랑했다.

부부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함으로써 진실한 관계를 이루었다. 몸과 마음의 조화와 배려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어렵지 않게 해내는 충성심이 있었다. 여가에도 따분함을 느껴 피곤해하는 사람이 없고 원치 않는 잠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없었다. 이토록 안락한 생활로 행복한 인류였으므로, 정욕 없이는 자녀를 낳을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다른 신체기관들과 같이 그들의 생식기관도 의지의 지시로만 움직였을 것이다. 아내가 남편의 품에 안기는 것도 음란한 욕정과 유혹적 자극 때문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과 흐트러지지 않은 온전한 육체의 행동이었다. 우리가 겪지 못했다 하여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낙원에서는 생식기관이 격동하는 욕정으로 움직이지 않고 아이를 낳아야 할 때와 자발적 능력에 따랐기 때문이다.

지금도 여성의 몸을 온전하게 놓아두어도 월경을 하듯이, 그때도 남편의 정액이 온전하게 아내에게 들어왔을 것이다. 월경이 흐른 길을 통해서 정액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궁이 열리는 것도 여성이 고통받을 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때가 왔기 때문인 것처럼, 남녀 본성의 결합도 욕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낳겠다는 의지의 올바른 바람에 따랐을 것이다.

398. 하나님의 섭리를 바꿀 수 있는 이는 없다

죄를 지은 자들이 천사든 사람이든 하나님 섭리를 방해할 수는 없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시111:2)라고 한 것과 같다. 주님은 자신의 예지와 전능으로 사람마다 그 몫을 나눠 주시어 선한 자들과 더불어 악한 자들까지도 바르게 쓰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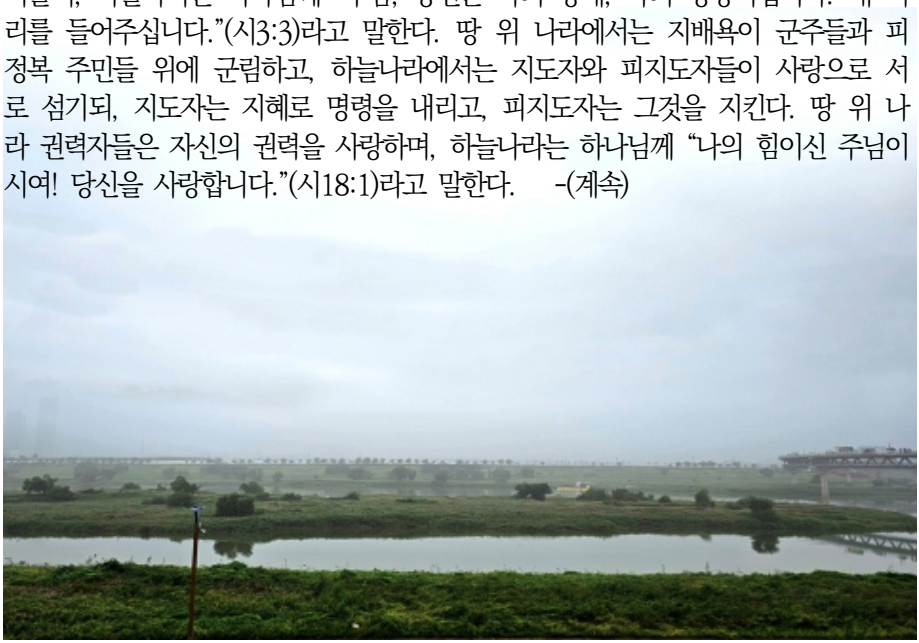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믿는다면 선한 인간으로서 악한 천사를 이길 수 있도록 지어졌다. 하지만 오만하게도 자기만족으로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악한 천사에게 지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올바른 의지로 사람은 선한 보답을 받으며, 하나님을 버리는 그릇된 의지로는 악한 보답을

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 도움을 믿고 기대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려웠지만, 인간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여 마음대로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람은 낙원에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선하게 살 능력은 없었지만, 악한 삶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악하게 살면 행복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할 터이고 더없이 마땅한 형벌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미래에 타락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터인데 어찌하여 저 원망과 시샘으로 가득한 천사에게 시험받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악의 유혹에 넘어갈 것을 오롯이 알고 계셨지만, 사람의 후손(창3:15)이 하나님 은혜의 도움을 받아 악마를 정복하여 성도들의 영광을 더욱 잘 나타내리라는 것도 함께 미리 내다보셨던 것이다.

399. 두 나라의 특징

두 사랑이 두 세계를 이루었다. 하나님을 멸시함에까지 이르는 자기 사랑이 땅 위 나라를 만들었고, 자신을 멸시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하늘나라를 만들었다. 땅 위 나라는 자신을 자랑하며, 하늘나라는 주님을 자랑한다.(고후10:17) 땅 위 나라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고, 하늘나라는 우리 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긴다. 땅 위 나라는 자기 영광에 겨워 머리를 높이 쳐들며, 하늘나라는 하나님께 "주님, 당신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 머리를 들어주십니다."(시3:3)라고 말한다. 땅 위 나라에서는 지배욕이 군주들과 피정복 주민들 위에 군림하고, 하늘나라에서는 지도자와 피지도자들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되, 지도자는 지혜로 명령을 내리고, 피지도자는 그것을 지킨다. 땅 위 나라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사랑하며, 하늘나라는 하나님께 "나의 힘이신 주님이시여! 당신을 사랑합니다."(시18:1)라고 말한다. -(계속)



각성



1. 소각성(小覺醒)

예수님은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눅5:4)고 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깊은 데로 나아가야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소각성(小覺醒) -중각성(中覺醒) -대각성(大覺醒)의 3단계로 깊어집니다.

지금 책상 위에 놓여있는 '성서'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합쳐 66권의 책을 하나로 모아놓은 합본집 입니다. 처음 쓰여진 책과 마지막 쓰여진 책 사이에는 약 1600년의 간격이 있고 약 40명 이상의 다양한 저자가 성서를 썼습니다. 그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은 '욥기'입니다. 모세오경이 기원전 1400년에서 1360년 사이에 기록되었고 욥기는 그보다 앞선 기원전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 성경인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 혹은 그 이전 시기의 실제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욥기의 주제는 '상실과 회복'입니다. 욥은 한 순간에 재물, 자녀, 아내, 친구, 건강까지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그렇게 욥이 나쁜 놈이었느냐? 아닙니다. 욥기 1장1절은 '그 사람은 흠 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했습니다.'(욥1:1) 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훌륭한 의인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그런 욥은 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을까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욥기'인 이유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

께서 그동안 붙잡고 살았던 것들을 욥처럼 몽땅 상실하게 하여 감정의 공황 상태를 만드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상실의 큰 아픔 속에서 생사를 초월하는 깨달음을 얻는데 그것을 소각성(小覺醒)이라 합니다. (8457)

2. 깨달으라

예수님께서 직접 '깨달으라'고 하신 기록이 복음서에 6회 나오고 같은 의미인 '내가 진실로 진실로'까지 하면 약 31회 정도 각성(覺醒)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종교는 가장 먼저 '각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불교에서는 '득도(得道)'라고 하고 선불교는 견성(見性)이라 하고 가톨릭은..(모르겠음)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각성(覺醒)'하지 않으면 불교 용어로 '도로아미타불'이라는 것이죠.

개혁교회에서는 거듭남, 중생(重生), 신생(新生), 헬라어로 아나겐나오(anagennao)를 각성(覺醒)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신앙고백을 하고 교회에만 잘 나오면 이미 각성한 것처럼 여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각성(깨달음)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평생 벽을 보고 앉아서 수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말 한마디로 그냥 날로 먹으려구요?

'욥기'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첫 번째로 넘어야 할 산인 '각성'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복' 좋아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딴 것 가볍게 무시하고 그냥 딴 길로 빠져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혼(魂)적인 일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혼적인 것들을 붙잡고 삽니다. 예수 믿음은 영(靈)적인 일로의 변화인데 그래서 욥처럼 모든 것을 잃게 하여 '혼의 상실'을 느끼고 영에 새롭게 눈뜨게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깨달음'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소(小)각성일 뿐입니다. (8458)

3. 영적 여정의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삶을 육체적으로 대~충 부자로 만들어 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버리고 완전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럭저럭 대충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그래라, 그럼" 하면서 버려두십니다. 그러면 시간

이 지남에 따라 교회에서 직분도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서 대접도 받다가 그럭저럭 대~충 어디든지 가겠지요.?

하지만 세상 무상함을 느끼고 다른 영적인 세상을 향하여 눈을 뜨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에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마6:24)으니 세상에서 붙잡고 살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주님을 선택했을 때, 욥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42:5)하고 새로운 차원의 신앙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야 비로소 영적 여정의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1:2) 그렇게 삶에서 상실을 경험하는 것은 큰 아픔이지만 그 속에서 철저하게 세상의 무상함을 깨닫는 순간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이고 장로이고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이 과정이 없으면 소(小)각성도 못한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낙원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는 곳이 아니고 주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나 무작위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여정을 시작한 이들을 선택하여 낙원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8459)

4. 중각성(中覺醒)

예수님께서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눅5:4)고 하셨고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 사람들은 중각성(中覺醒) 단계에 들어갑니다. 아직 소각성도 하지 못한 육의 사람들은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팔아 부자가 된다'는 지극히 세속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중각성(中覺醒)은 이 세상이 고(苦)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전1:13) 그런 면에서는 불교가 한발 앞서있는 것 같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고성제(苦聖諦)는 이 세상을 고해(苦海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성취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중각성(中覺醒)에 이르면, 세상 그 어떤 환경도 육신적으로 보면 모두 똑같은 수고로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가난하면 가난함의 어려움이 있고 부자는 부함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며, 병자는 병자의 어려움이 있으나 건강한 자는 건강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낮은 자는 그 낮음으로 인한 수고가 있고 높은 자는 그 높음으로 인한 수고가 있으니 인간의 삶은 그냥 다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늙고 병드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으니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늘의 은혜 가 있으면 한 큰 깨달음을 얻게 되나니 그것이 바로 중각성(中覺醒)에 해당합니다. (8460)

5.대각성(大覺醒)

예수님께서는 이왕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얕은 물가에서 찰싹이는 신앙이 아니라 깊은 데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대각성(大覺醒) 단계는 죽음을 초월한 단계입니다. 삶과 죽음, 생사(生死)가 다르지 않음을 아는 것입니다. 소각성은 아는 지식이고 중각성은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고 대각성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뿌리 깊이 육신의 감각과 생각에 묶여있어서 부함과 가난이 일반임을 알면서도 부함을 구하고, 건강과 병듦이 같은 것을 알면서도 건강을 구하고, 삶과 죽음이 일반임을 알면서도 삶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건강이나 부요함이나 삶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일반이고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닌 순환의 무상한 것임에도 그러한 것들이 참인 것처럼 구하는 인간의 속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속성, 본성을 아시므로 지식에서 깨달음으로, 깨달음에서 실제의 삶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게 하면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점점 강해져 가고 또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세상의 것들의 무상함과 삶과 죽임이 일반임을 아는 궁극의 앎으로 나아가며, 그 속에서 무엇이 참된 것이며 어떠한 삶이 참된 생명의 삶인 것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각성의 삶을 종교적 언어로 성화(聖化)와 영화(榮化)라고 합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성화와 영화는 천국에나 가야 이루어지는 것이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깊은 데로 가서 대각성을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8461)

6.부정의 기독교

예수님은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눅5:4)고 하십니다. 이왕 예수를 믿었으면 제대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긍정의 종교'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과 같은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갑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같은 책들은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마음속에 어떤 것을 바라면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면 교회 지붕이 들썩일 정도로 "아메엔~"을 우렁차게 외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긍정'을 강조하는데 기독교는 왜 불교 가톨릭 원불교보다도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미움받는 종교가 되어버렸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부정'을 하지 않으니 세상이 '부정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긍정(肯定)'의 종교가 아니라 '부정(否定)'의 종교입니다. 깨달음이란 '자기를 부정하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마16:24)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 성경들은 '부인'이 아니라 '부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내 생각이나 욕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삶의 중심을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는 것, 매일 나의 고집과 욕심과 탐심과 탐욕과 죄성을 회개하고 내려놓는 것이 '부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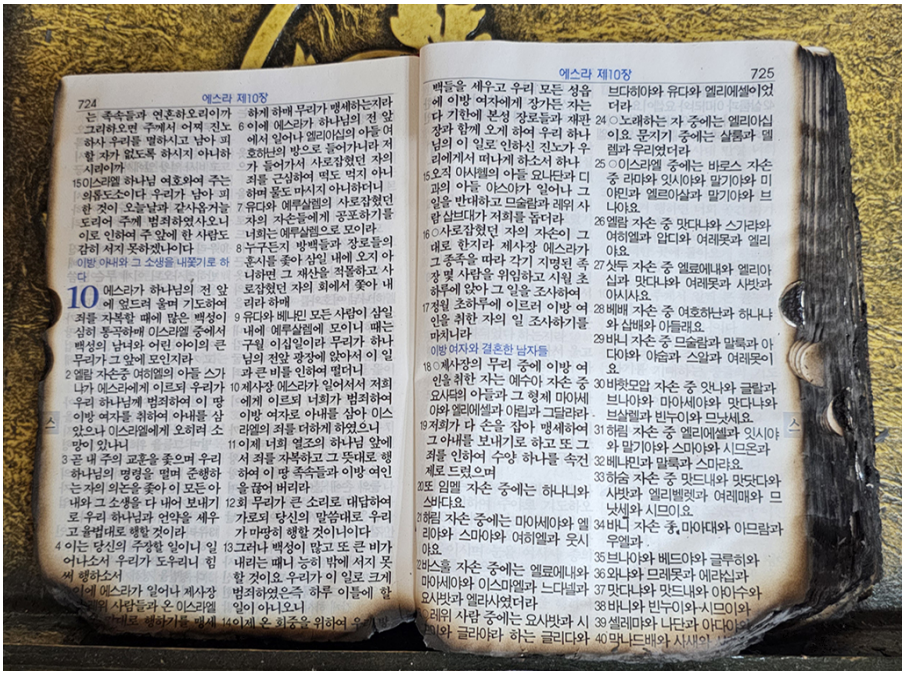
지금처럼 기독교가 '긍정의 힘'을 외치며 세상에 바벨탑 쌓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소-중-대각성(大覺醒)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난망(難忘)한 일일 것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냥 한번 써 봤습니다. 끝 (8462) ⓒ최용우



햇볕같은이야기 https://cyw.pe.kr

그동안 쓴 글을 모은 300-350쪽 내외의 책 총27권 중
2026년 현재는 14권을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1.〈가슴을 쫙 펴라!〉 308쪽 11600원 https://c11.kr/06yw
2.〈다시 벌떡 일어나라〉 336쪽 12400원 https://c11.kr/07yw
3.〈정정당당 잘 살자〉 336쪽 12400원 https://c11.kr/08yw
4.〈예수 잘 믿는 비결〉 326쪽 12100원 https://c11.kr/09yw
5.〈가장 큰 선물〉 326쪽 12100원 https://c11.kr/010yw
6.〈인생 최대의 행복〉 316쪽 11800원 https://c11.kr/012yw
7.〈나도 할 말 있다 냐옹〉 318쪽 11900원 https://c11.kr/016yw
8.〈하나님의 얼굴〉 326쪽 12100원 https://c11.kr/018yw
9.〈예수님을 따르는 삶〉 328쪽 12200원 https://c11.kr/023yw
10.〈예수 나의 형통〉 330쪽 12200원 https://c11.kr/027yw
11.〈하동-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320쪽 14300원 https://c11.kr/031yw
12.〈예동-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326쪽 14600원 https://c11.kr/039yw
13.〈성동-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318쪽 15000원 https://vo.la/xYamE
14.〈회동-주님과 회동하는 삶〉 316쪽 17000원 https://vo.la/Stw2wwe



불탄 성경 (사진:최용우)

불탄 성경

실로원교회 제대에 불에 타다만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다.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찍었다. 이곳에 땅을 사놓고 건축사를 계속할 것인지 목회를 할 것인지 고민하던 중 건축 사무소를 정리하면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짐을 모두 옮겨 놓았었는데, 어느 겨울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고 한다.

잿더미를 파헤치다가 타지 않은 성경책을 발견했다. 목회를 하라는 주님의 뜻으로 알고 그 자리에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 교회를 지을 당시만 해도 주변에 무덤들이 잔뜩 있어서 무서운 곳이었는데, 여기에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 무덤들을 알아서 이장을 해 나갔다고 한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교회 개척은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에 마귀의 극심한 방해를 받게 된다. 그것을 극복해야 이 땅에 교회 하나가 세워진다.

건널목 건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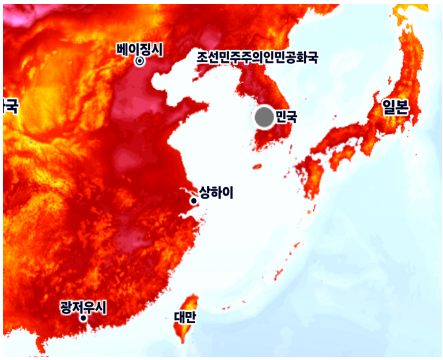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가게는 호려울 3단지에 지난달에 새로 문을 연 홈마트이다. 이미트에브리데이가 문을 닫고 한동안 비어있던 자리에 홈마트가 들어와 개업을 했다. 그 홈마트 가려면 긴 건널목을 건너서 500미터 정도 더 가야 한다.

금강변으로 운동을 갈 때도 건널목을 건너야 하고 피자 사러 갈 때도, 치킨 사러 갈 때도, 빨래방, 미용실, 다이소 갈 때도 건너야 한다. 하루에 한두 번은 꼭 건널목을 건너는 것 같다. 아침저녁으로 아이들, 학생들이 잔뜩 건너다닌다.

세종시를 한 바퀴 도는 비알티 메인 도로라서 8차선이나 되는 긴 건널목이다. 그래서 건널목을 건널 때는 뛰다시피 하며 건너다닌다.

웃긴 것은 파란 신호등으로 바뀌자 마자 스피커에서 "다음 신호에 건너세요"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불타 세상



일기예보를 알려주는 핸드폰 앱에 지도가 갑자기 뻘개져 있어서 깜짝 놀랐다. 지도를 줄여 세계지도를 보니 거의 전 세계가 불덩어리였다.

우리나라는 1904년 근대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경남 양산시에서 42.5℃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유럽은 40도까지 기온이 올라가도 건조한 곳이라 체감하는 온도는 훨씬 낮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가 훨씬 높다. 4계절을 살면서 극한의 추위와 극한의 더위를 넘나드는 환경에 적응이 되어 이 정도 쯤이야... 그래도 덥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상 불타오르는 더위가 갑자기 팍 꺾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일이 가을의 시작 입추(立秋)이다. 내일이 지나면 갑자기 기온이 팍 떨어질 것이다. 지구가 태양을 타원형으로 도는데 내일부턴 태양과 점점 멀어져 가는 타이밍이다.

맨발 걷기



비학산 들입인 신촌공원 길가에 신발들이 대여섯켤레 풀밭에 있었다. 지금 맨발로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저만큼 있다는 뜻이다. 산길이 좋아서 맨발로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제법 비싼 운동화도 있고 크록스 신발도 있다. 크록스도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하는 신발이다. 저렇게 신발을 벗어놓고 산에 다녀와도 누가 가져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면 손대지 않는다'는 인식이 어릴적부터 교육이 되어 있다. 또 남의 물건을 훔치다 걸렸을 때 사회적으로 받게 되는 '쪽팔림'이 더 싫다. 결정적으로 남이 신었던 신발은 위생적으로 더러워서 줘도 안 신는다.

우리나라는 군자지국(君子之國)이다. 군자가 사는 나라라는 뜻이다. 군자는 쪽팔리는 짓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서해 바다



그녀가 지난번에 뜬금없이 "바다 보고 싶어요." 해서 동해 바다를 깜짝 다녀온 것이 좋았던지 이번에는 '서해 바다'를 보러 가자고 한다.

혹시 수산시장이 있는 '홍원항' 정도에 '해물라면'이 있을까? 해서 홍원항까지 125km를 1시간 30분만에 달려갔다.

확실히 우리집에서는 서해안이 가깝다. 그런데 홍해항은 쭈꾸미와 횟집이 많았고 따로 '해물라면'을 파는 곳은 없었다. '해물 칼국수'라도... 하며 검색을 해서 '선도리 갯벌해변'에 있는 '웰빙칼국수' 찾아갔다.

아주 아주 오래된 어촌 칼국수 식당이었는데 진짜 대박! 기가 막힌 숨은 맛집이었다. 파도치는 서해 바다를 실컷 보고 장항을 거쳐 군산 '이성당' 빵집에서 빵을 사 가지고 다시 열심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녀가 또 뜬금없이 '남해 바다' 보러 가자고 하면 어떡하지? 남해는 진짜 진짜 멀어서 하루 가지고는 안 되는데...

높은 곳



도서관 다녀오다 신호등에 걸려 잠시 서 있는 동안 49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세종시에 50층 이상은 고도제한 때문에 없고 49층짜리가 5동 있는데 그중 하나인 모양이다.

16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도 어지러운데 50층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느낌일지 높은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아득한 그런 느낌?

인간이 본능적으로 높은 위치를 권력과 성공의 상징으로 인식하는 심리적 경향을 '공간적 위계 심리'라고 한다. 그래서 뉴욕의 마천루 꼭대기는 전 세계의 부자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천문학적인 가격을 붙인다. 그리고 세계의 부자들은 기꺼이 그 돈을 지불하고 그 공간을 소유하면서 자신이 부자라는 것을 만끽한다.

그런데 나는 16층에서 1년을 살아 보니... 아직도 어리버리 적응이 안 된다. 나는 높은 곳에서 살 사람은 아닌 모양이다.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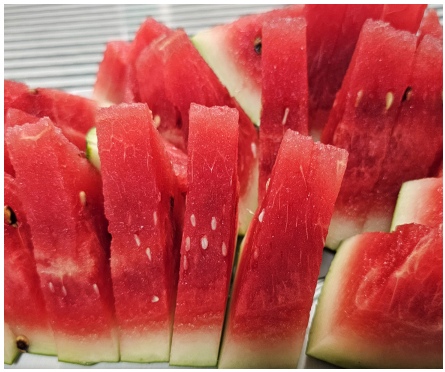


오후에 산책운동을 하다가 뜬금없이 '여행'을 하고 싶어졌다. 나는 '가만히 생각하면' 기분 좋은 것은 무엇일까? 금방 생각났다. 그것은 '여행'이다 여행만 생각하면 방그래 웃음이 난다.

어떻게 하면 여행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선원이 되면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사고'에 입학해 선원이 되어 제법 많은 나라들을 어린 나이에 다녀 보았다. 결혼했는데 아내가 여행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선뜻 따라나서는 용기는 없었다. 그래서 나도 아쉽지만 여행의 꿈을 접었다.

여행을 못 가면 산에라도 가자 해서 '등산'을 시작했다. 전국에 있는 산에 제법 많이 다녔다. 지금도 산에 가는 전날 밤에는 마음이 설렌다. 나의 이 '방랑벽'은 아버지의 유전자인 것 같다. 엿장수 아버지도 전국을 돌아다니는 떠돌이였던 기억이 가물가물...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지구별에 잠시 여행을 온 나그네들이다.

똥수박



시골에서 수박이나 참외를 먹고 거름용 인분(똥)에 섞여 밭이나 풀숲에 버려진 씨앗이 저절로 자라 열매를 맺은 것을 전라도에서는 친근하게(혹은 투박하게) 똥수박, 똥참외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다.

누군가 먹고 버린 수박 씨앗이 마당에서 발아하여 싹이 나고 자라 주먹만 한 열매가 맺힌 것이 눈에 띄였다. 장모님이 "요것 봐라?" 하시면서 짚으로 받쳐주고 주변을 파서 거름을 듬뿍 넣었다.

매주 한 번씩 식구들이 수박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마디씩 했었다. 그렇게 온 가족의 응원을 받고 쑥쑥 잘 자라던 수박은 선선한 날씨에 더 크지는 않아서 드디어 날 잡았다. 수박은 제법 빨갛게 잘 익었고 맛도 달았다. 심지 않았으나 저절로 자란 똥수박을 다들 한마디씩 하면서 맛있게 먹었다.

구름일기



오늘도 고개를 들어 창밖의 하늘을 본다. 커다란 뭉게구름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며 거대한 구름쇼를 한다. 올해의 일기 제목은 '구름일기'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구름을 관찰하며 '구름일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계획 자체를 잊어버렸다. 이제는 내 기억력도 신뢰할 수 없다. 무조건 기록!

내가 16층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구름쇼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가만히 있는 이런 소중한 시간을 얼마나 더 이곳에서 가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아파트에서 1년 4계절을 살아보니 장단점이 이제 조금 파악되는 것 같다.

창문을 열면 아래에서 온갖 인공적인 소리가 위로 올라와 정말 시끄럽다. 수도자에게는 매우 안 좋은 환경이다. 반면에 여름에는 너무 높아서 모기가 못 올라온다. 그건 장점!

대전 중앙시장



바느질로 가방 파우치를 만들던 그녀가 "우리 대전시장 갈까? 가서 맛난 것 사 먹자" 전에 딸들과 함께 살 때는 딸들을 데리고 다니더니 이제 둘이 살다보니 나를 살살 꼬신다.

"그려~ 다녀오자구. 그런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버스 타고 가야 돼."

나는 먹을 것에 관심이 가득 차 있고, 그녀는 맘에 드는 천을 살 생각이 가득 차 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 대전 중앙시장에 갔다. 우선 밥부터 먹자... 은행동은 먹을 것 천국이다. 그런데 그러면 뭐하나... 그녀 맘에 드는 것은 하나도 없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네... 김치찌개 먹자구."

"5ㅁ2685ㅛ셔ㅑ^&* 여기까지 와서..." 어쨌든 뭔가를 먹었다.

그리고 그 다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성심당에 달려가 무조건 줄을 섰다. "와~ 오늘 성심당 빵 샀다." 나도 따라왔으니 뭔가 챙기는 게 있어야지...

그때, 내가 왜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 내려다보니 번호판도 없고 뒤에 여자친구를 태운 오토바이를 경찰차가 뒤쫓고 있었다.

거의 잡혔다 싶은 순간 오토바이가 화단을 훌떡 뛰어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도망쳐 버렸다. 경찰차는 허망한 듯 사이렌을 껐다. 세종시 중앙선은 가운데 BRT노선이 있어서 제법 높아 경찰차가 넘을 수 없다.

90년대 안산에 살 때, 젊은 청년 하나가 신발도 안 신고 달려왔다. 경찰들이 쫓아오고 있었고 나는 옆에 있던 의자를 던져서 그를 넘어지게 했고 청년은 잡혔다. 그런데 그는 나를 원망하기는커녕 너무나 슬픈 눈으로 나를 봤다.

그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생각하니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수배자가 된 대학생이었던 것 같다. 아이고... 그때 내가 왜 의자를 던졌을까, 지금도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이불킥을 한다. ⓒ최용우

□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마5:1)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山行

▲제759회 성봉(786m 진안) 2026.8.1

▲제760회 비학산323 (일출봉252m) 2026.8.8.

▲제761회 도장봉(461m 장성)



어머님 기일이 15일인데 15일에는 약속이 있어서 오늘 미리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다. 날씨가 더우니 일찍 출발해서 9시에 고향마을 장성 어머니 산소에서 아우를 만나 벌초를 했다.

생각보다 일찍 끝나 근처에 있는 블랙야크 인증산인 도장봉(461m)에 올랐다. 도장봉은 장성 담양 순창이 만나는 삼각점에 있는 산인데, 순창군 복흥면 어은리 마을에서 산에 오르는 길이 있었다. 도장봉이 왜 도장봉인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도장봉에 올라 도장을 찍었다.

차로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깊은 골짜기 끝에 '어은리'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마을 한가운데 잘 지은 마을회관이 있고 사람들이 나무 그늘에 앉아서 큰소리로 "저기 보이는 큰 나무 있는 곳.." 어디 어디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었다.

오늘도 역시나 맷돼지가 산을 다 헤집어 놓았고 맷돼지 목욕탕에서 뒹군 흔적이 있었다. '성난 맷돼지는 호랑이보다도 무섭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섭다. 맷돼지의 천적은 총과 사냥개 뿐이다. (2026.8.12)

▲제762회 반야산(96.2m 논산) 2026.8.20.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우리의 만남은 맛남 입니다~

①가을이라 잘못하면 엄벙덤벙 가버린다

떠도는 것들이 산천에 가득 차서
거적때기 같은 것으로 서로의 발을 덮어주며
잠든 것이 보이고 잠 못 들어 뒤척이던 인부 둘이서
두런거리며 그곳을 빠져나와 어디론지 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
-〈백로(白露)〉 이시영

이슬이 내린다는 백로입니다. 나라 밖으로는 인공지능, 미국-이란 전쟁, 티베트 빙하홍수 나라 안에서는 이념논쟁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곳으로 휩쓸려가기 딱 좋은 세상입니다.



②표지사진 이야기

시스탄테 그랜드플로라(Cistanthe grandiflora)는 이름의 칠레가 원산지인 쇠비름과의 다육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꽃 모양이 채송화와 비슷해 '큰채송화'라고 부르는 꽃입니다. 지름 약 6cm 정도의 크고 밝은 분홍빛(또는 보라빛) 꽃을 피우며, 갸름하고 긴 꽃대가 높이 50cm까지 자라납니다. 동네 갈비집 화단에서 보았는데 사진을 찍지 못해서, '박노해의 걷는 독서'에서 사진을 빌려왔습니다. (사진:박노해)

③도서출판 소식

■신간 〈가을 묵상〉 218쪽(컬러) /218쪽(컬러) 17000원 2026.8.28. 출간!
일상 사진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리얼리티!

106권. **회동-주님과 동행하는 삶** (햇볕24)/ 316쪽 17000원 2026.7.24. 퍼플
105권. **기도에 관한 153개의 글** (필3) /180쪽(컬) 15000원 2026.6.29.퍼플
104권. **일상의 산책** (詩18) /210쪽(컬러) 17000원 2026.5.28.퍼플
103권. **만사록5권-지옥** /304쪽 16000원 2026.4.29.퍼플
102권. **누가 예수어록** /632쪽 28000원 2026.3.20.퍼플
101권. **시편으로 쓴 시편시** (詩17) /404쪽(컬러)27000원 2026.2.27.퍼플
100권. **하늘일기** (일기17) /396쪽(컬러)27000원 2026.1.30.퍼플
99권. **일상의 여유** (詩16) /210쪽(컬러)17000원 2025.12.22.퍼플

98권. **만사록4권-성경** /304쪽 17000원 2025.11.21.퍼플
97권.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2) 256쪽(컬) 19000원 2025.10.21.
96권. **여름 묵상** (계절2) 218쪽(컬러) 17000원 2025.8.8.퍼플
95권. **일상의 사랑** (詩15) 210쪽(컬러) 17000원 2025.6.27.퍼플
94권. **만사록3권 -구원** /304쪽 15000원 2025.6.3.퍼플
93권. **신령한 법에 관한 200개의 글** (필1) 220쪽(컬러) 15000원 2025.4.18.퍼플
92권. **야단법석** (詩14) 210쪽(컬러) 15000원 2025.3.18.퍼플
91권. **봄 묵상** (계절1) 218쪽(컬러) 13900원 2025.2.28.퍼플
90권. **들꽃편지21 -쑥갓꽃** /510쪽(컬러) 30200원 2025.2.19.(승인 반려)
89권. **그냥일기** (일기16) 394쪽(컬러) 25000원 2025.1.17.퍼플
88권. **만사록2권 -정직** /304쪽 15000원 2024.12.30.퍼플
87권. **일상의 노래** (詩13) 210쪽(컬러) 15000원 2024.11.29.퍼플
86권. **만사록1권 -생각** /304쪽 15000원 2024.10.11.퍼플
85권. **마가 예수어록** /324쪽 15000원 2024.8.30.퍼플
84권. **일상의 기적** (詩12) 210쪽(컬러) 15000원 2024.8.9.퍼플
83권. **오두막 일기** (일기15) 398쪽(컬러) 24000원 2024.7.11.퍼플
82권. **성동-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햇볕23) 318쪽 15000원 2024.5.28.퍼플
81권. **마태 예수어록** /692쪽 28000원 2024.3.19.퍼플
80권. **아내에게 바치는 시** (詩11) 216쪽(걸러) 15000원 2023.12.26.퍼플
79권. **들꽃편지20-호박꽃** /510쪽(컬러) 30200원 2023.12.20.퍼플
78권. **들꽃편지19-모과꽃** /510쪽(컬러) 30200원 2023.11.1.퍼플
77권. **들꽃편지18-사철채송화** /510쪽(컬러) 30200원 2023.11.6.퍼플
76권. **들꽃편지17-데이지** /510쪽(컬러) 30200원 2023.10.2.퍼플
75권. **여유일기** (일기14) 396쪽(컬러) 23800원 2023.9.15.퍼플
74권. **들꽃편지16-고구마꽃** /510쪽(컬러) 30200원 2023.9.1.퍼플
73권. **들꽃편지15-노란꽃** /510쪽(컬러) 30200원 2023.8.3.퍼플
72권. **들꽃편지14-작약꽃** /508쪽 21100원 2023.7.6.퍼플
71권. **들꽃편지13-도라지꽃** /512쪽 21300원 2023.6.12.퍼플
70권. **들꽃편지12-장미꽃** /504쪽 21000원 2023.5.10.퍼플
69권. **들꽃편지11-과꽃** /506쪽 21000원 2023.4.10.퍼플
68권. **들꽃편지10-천인국꽃** /504쪽 21000원 2023.3.11.퍼플
67권. **들꽃편지9-분꽃** /510쪽 21100원 2023.2.8.퍼플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100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6.8월 재정결산

2026년 8월(1-31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김광현 김상식 김준경 박근식 박승현 양회창 오창근 옥치오 이진우 장기갑
전서월 정효숙 조상윤 최용남 한주환 들꽃교회 안디옥교회 월간새벽기도
정릉교회 함안중앙교회 모두 20분이 거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볕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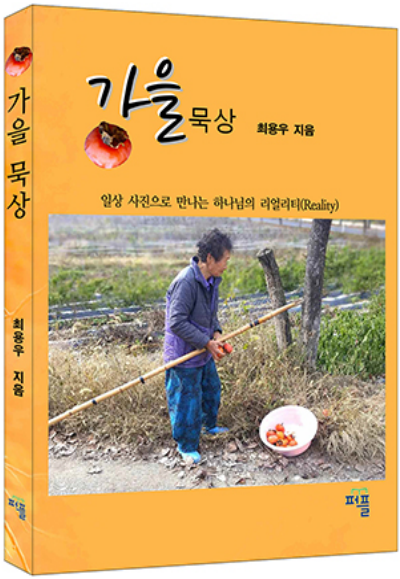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볕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비 이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볕사역 -인터넷신문 햇볕같은이야기 2026.9.5일까지 8472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주보자료파일, 전도자료 발행
③출판사역 -그동안 107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사역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독거인,문서2,인터넷,북방선교2,선교사,난민)
⑥피정사역(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몇 년 동안 작은 흙집 한 채를 빌려 〈햇볕같은집〉이라는 이름으로 피정 사역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한번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기독교목회사역자들이 언제든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피정사역을 위한 특별 후원헌금 구좌 /우체국 100347-02-096053(이인숙)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새로 나온 책

일상 사진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리얼리티(reality)



1권 봄 묵상 (판매중)
2권 여름 묵상 (판매중)
〉**3권 가을 묵상 (판매중)**
4권 겨울 묵상 (판매중)

최용우 사진 글
218쪽(컬러) 17,000원 퍼플

'저는 마당이 있는 시골 단독 주택에 살기에 거미줄을 자주 봅니다. 거미는 처마밑이나 나무 사이, 또는 창문에 걸쳐서 거미줄을 칩니다. 그들의 거미줄 짓기 신공을 보노라면 저의 영혼 깊은 곳에서 어떤 전율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들이 쳐놓은 거미줄은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햇살의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습도에 따라서 미묘하게 다른 형태로 변합니다. 그런 미세한 차이를 실제로 느껴보셨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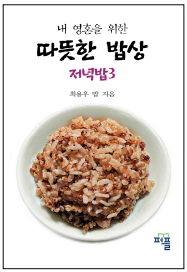
우리가 매일 만나는 평범한 일상과 풍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경험하셨는지요? 저는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 능력은 곧 하나님의 현실(reality of God)입니다. 그 하나님의 현실은 "생명의 리얼리티"(reality of life)입니다.

아주 세심하면서도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나무에 관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헤르만 헷세에게서 보듯이 (『헤르만 헤세의 나무들』 참조) 일상의 여러 순간에 마주친 생명의 소소한 리얼리티를 구도적인 태도로 사진과 묵상글로 묶어낸 이가 바로 최용우 님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 추천사를 대신하여 정용섭 (대구성서아카데미 원장)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용우 저서



따뜻한 밥상7-저녁밥3

밥은 스스로 떠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말씀의 밥을 자신의 말로 만들어서 자신의 고백으로 '아멘'을 할 수 있게 묵상하였습니다. 사도행전-요한계시록을 1년 동안 묵상합니다.
398쪽 17,000원 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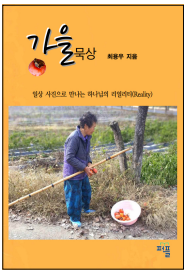
봄 묵상

일상 사진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리얼리티(reality) 13년 동안 일상의 모습을 찍어서 '기독교바탕화면'을 만들었던 사진 중에서 3,4,5월 봄사진 200장을 골라 묵상글과 함께 편집하였습니다.
218쪽(컬러) 15,000원 퍼플



여름 묵상

일상 사진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리얼리티(reality) 13년 동안 일상의 모습을 찍어서 '기독교바탕화면'을 만들었던 사진 중에서 6,7,8월 여름 사진 200장을 골라 묵상글과 함께 편집하였습니다.
218쪽(컬러) 17,000원 퍼플



가을 묵상

일상 사진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리얼리티(reality) 13년 동안 일상의 모습을 찍어서 '기독교바탕화면'을 만들었던 사진 중에서 9,10,11월 가을사진 200장을 골라 묵상글 과 함께 편집하였습니다.
218쪽(컬러) 17000원 퍼플



겨울 묵상

일상 사진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리얼리티(reality) 13년 동안 일상의 모습을 찍어서 '기독교바탕화면'을 만들었던 사진 중에서 12,1,2월 겨울 사진 200장을 골라 묵상글 글과 함께 편집하였습니다.
218쪽(컬러) 13,900원 퍼플



마태 예수어록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에서 빨간색으로 인쇄된 예수님의 말씀 구절만 모두 뽑아 아침마다 한 절씩 묵상하고 주신 은혜와 감동과 능력을 받아 적어 모았습니다.
692쪽 28,000원 퍼플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샬롬!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햇볕같은이야기 https://cyw.pe.kr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정) http://cyw.co.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150 세종시 보람1길12 호려울마을2단지 201동 1608호 들꽃편지 햇볕같은이야기

들꽃편지(WildflowerLetter)제692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